KMI INFOGRAPHIC

발간일 2026년 9월(통권 제69호)
발행인 조정희 감수 육근형
자료문의 해양경제연구실 김태한
TEL 051-797-4783
홈페이지 www.kmi.re.kr

2025.04-2026.07 | 빅카인즈 이슈 분석

해양수도 이슈의 정책 의제화와 실행 확장

빅카인즈 '해양수도' 관련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보도량 변화, 피크 시점, 핵심 연관어와 4대 이슈 클러스터를 정리하였다.

1,716건
최종 분석대상

2025.04.01–2026.07.30
분석 기간

211건
최고 월간 보도량 · 2026년 05월

35건
최대 피크 · 2025.12.08

핵심 언론보도 요약

최대 피크
12월 8일 : 35건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산업·금융 전략 보도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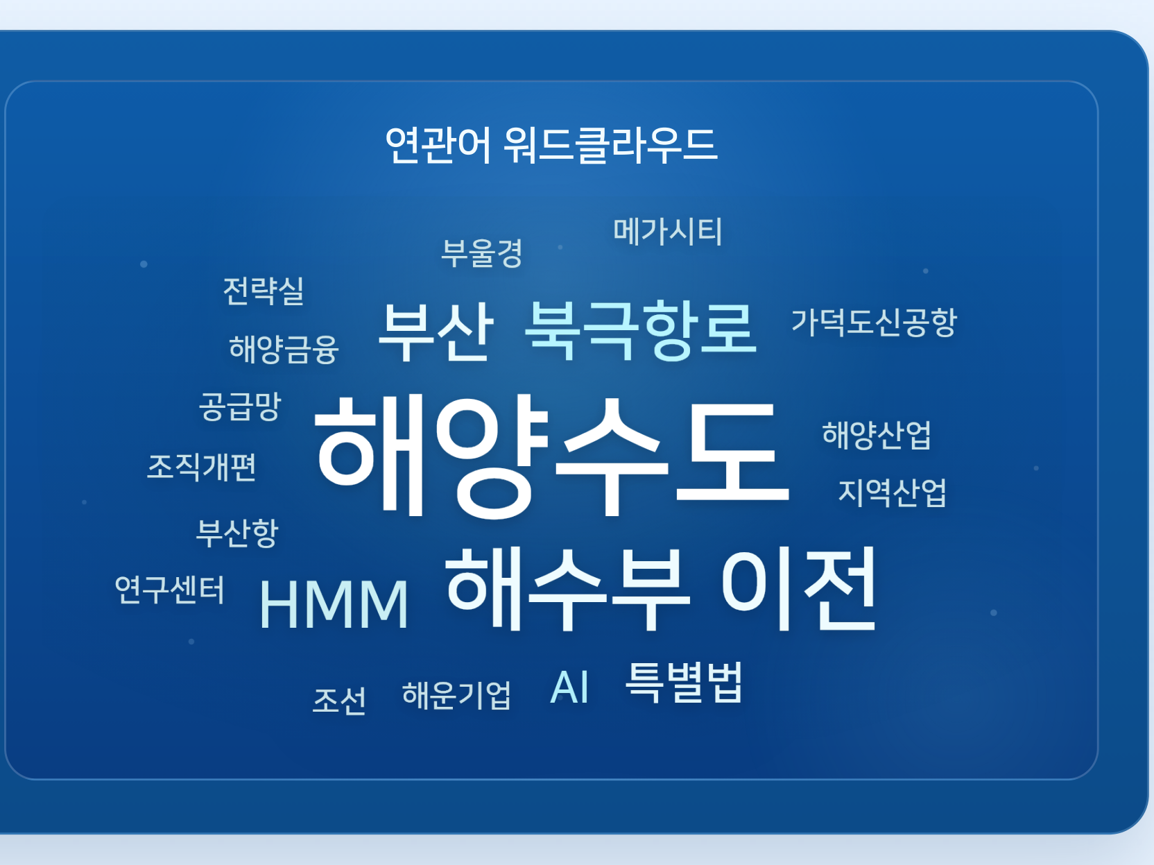
제도화
11월 27일 : 33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통과

확장 국면
7월 22일 : 29건
부산시 조직개편·해양수도전략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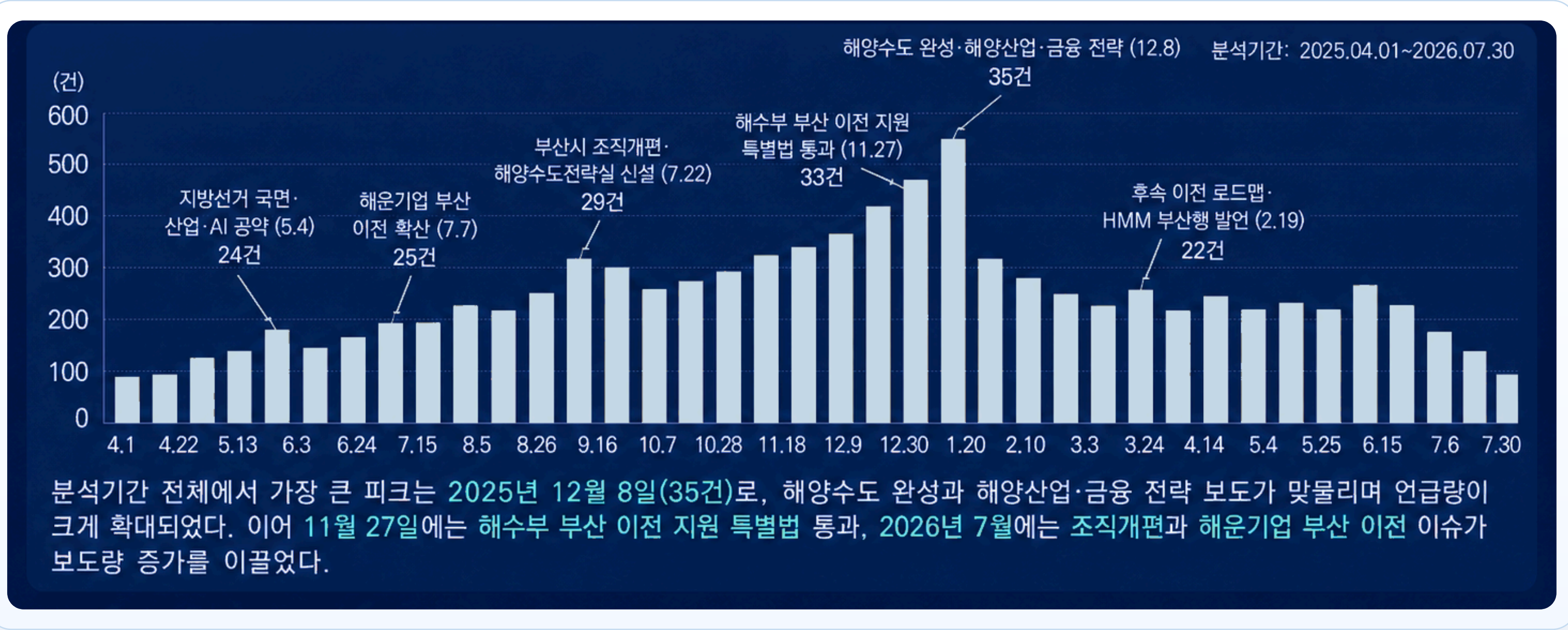
후속 논의
2월 19일 : 22건
후속 이전 로드맵과 HMM 부산행 발언 재점화

해양수도 이슈는 해수부 이전과 특별법을 중심축으로, 북극항로·해운기업·AI·해양금융·부울경 확장 논의가 결합하며 정책 의제의 외연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1. 언론보도량 추이



분석기간 전체에서 가장 큰 피크는 2025년 12월 8일(35건)로,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산업·금융 전략 보도가 맞물리며 언급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통과, 2026년 7월에는 조직개편과 해운기업 부산 이전 이슈가 보도량 증가를 이끌었다.

해석

분석기간 전체에서 가장 큰 피크는 2025.12.08(35건)로 나타났고, 이후 2025.11.27(33건), 2026.07.22(29건), 2026.07.07(25건) 등 주요 시점에서 언급량이 집중되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특별법이 보도량 증가를 이끌었고, 2026년 들어서는 해운기업 이전, AI·해양산업 생태계, 해양수도권 확장 논의가 결합하며 피크가 분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2. 피크 시점의 증가 요인

STEP 1
공약·등장기
2025년 4~7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 부산 담론이 본격 등장

STEP 2
제도화기
2025년 8~12월: 특별법·청사·이전지원 논의가 구체화되며 보도량 확대

STEP 3
확장기
2026년 1~4월: HMM·부산항·북극항로와의 연계 논의가 본격화

STEP 4
실행기
2026년 5~7월: AI·산업생태계, 부울경 확장, 조직개편 이슈가 결합

날짜	기사 수	주요 이슈
2025.12.08	35건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산업·금융 전략 보도가 맞물리며 언급량이 크게 확대된 시점임.
2025.11.27	33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보도가 집중된 시점임.
2026.07.22	29건	부산시 조직개편과 해양수도전략실 신설 보도가 맞물린 시점임.
2026.07.07	25건	흥아해운 등 해운기업 부산 이전 보도가 대거 확산된 시점임.
2026.05.04	24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양수도 부산과 산업·AI 공약이 집중 제시된 시점임.
2026.02.19	22건	해수부 후속 이전 로드맵과 HMM 부산행 발언이 재점화된 시점임.
2026.04.30	22건	HMM 부산 이전 합의와 해운물류 허브 논의가 확산된 시점임.
2026.05.27	20건	바다의 날과 해양수도 완성 공약 보도가 함께 늘어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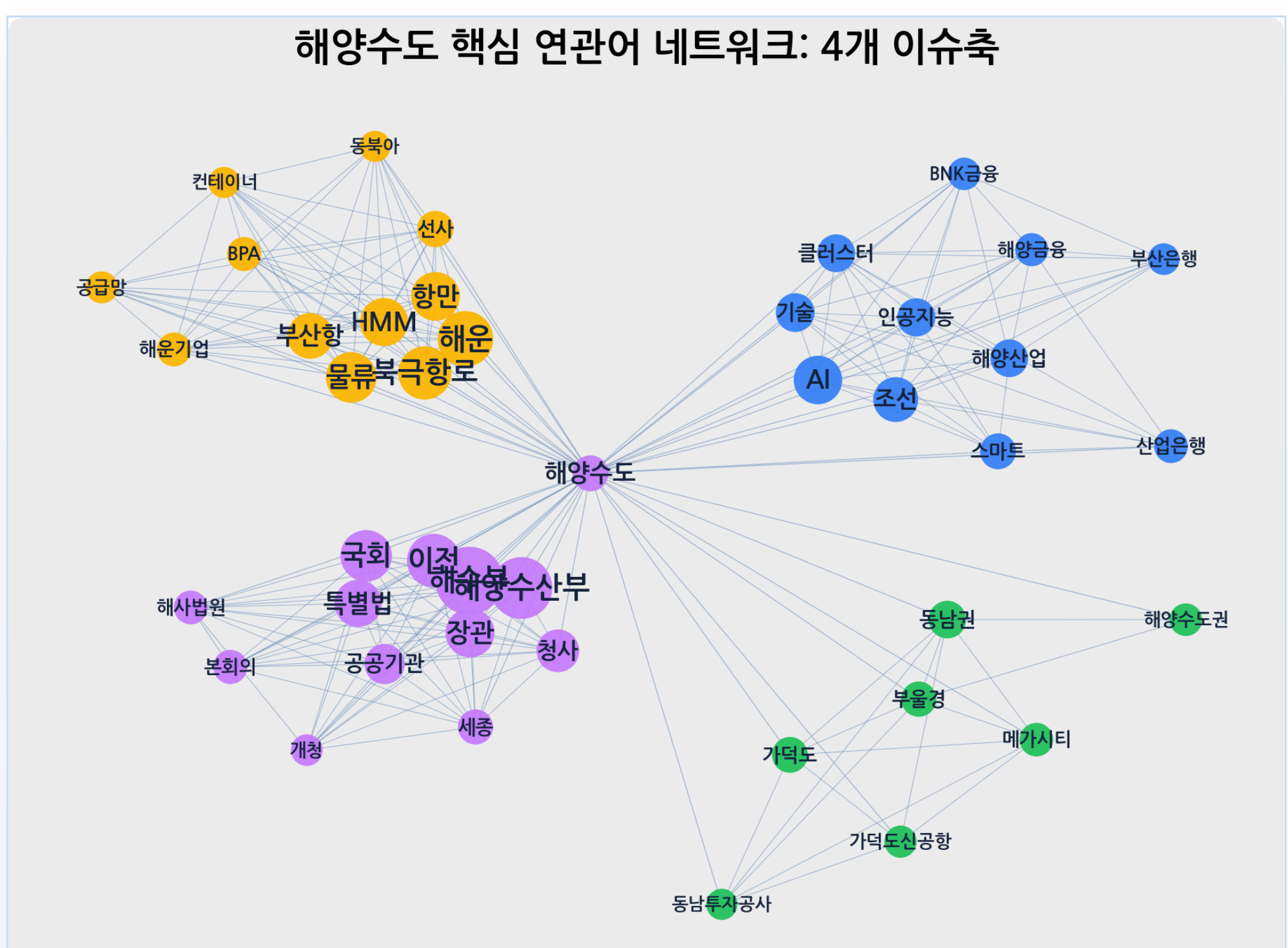
3. 핵심 연관어와 네트워크

4개 대분류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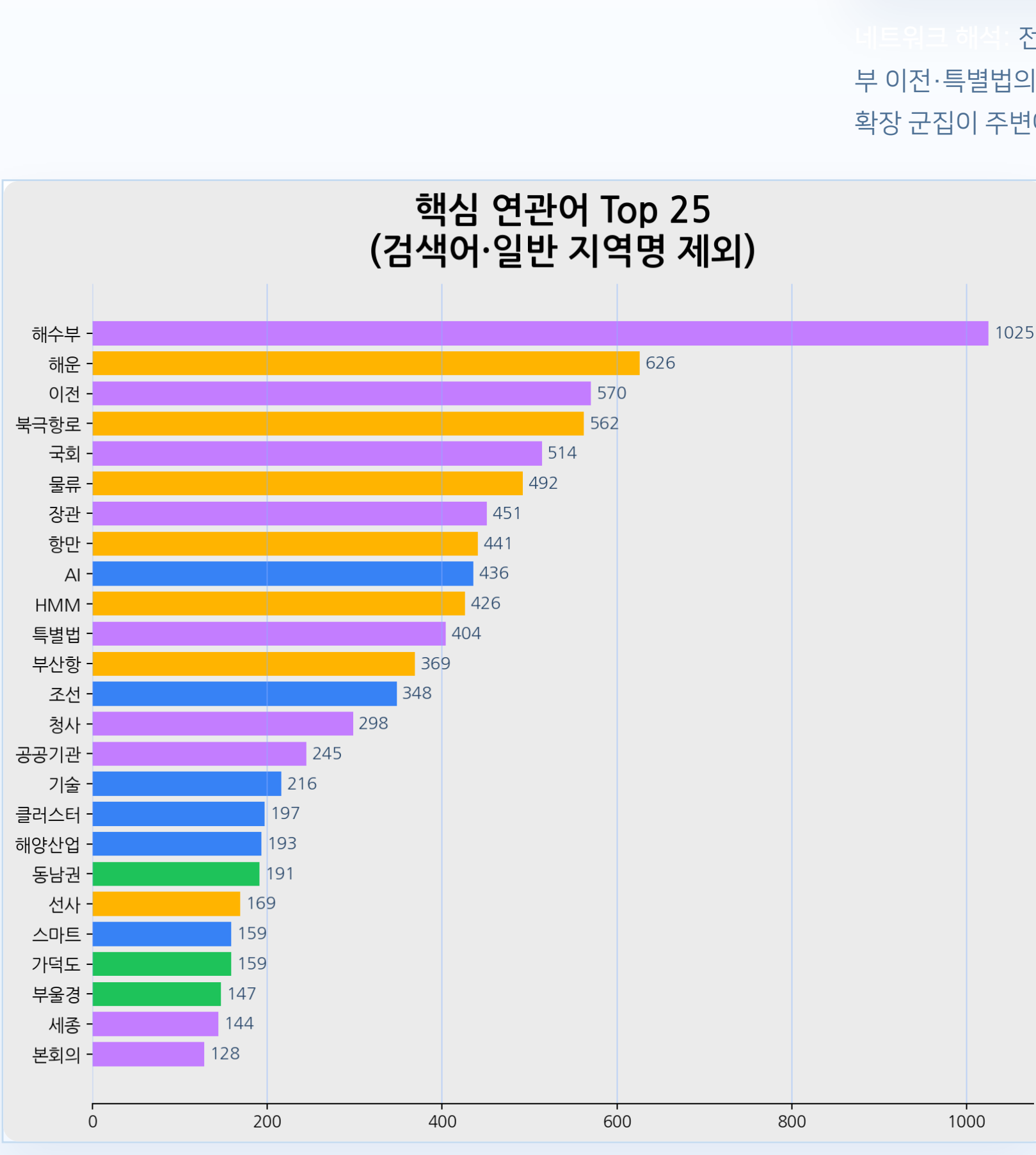
기사 제목·키워드·특성추출 기반 규칙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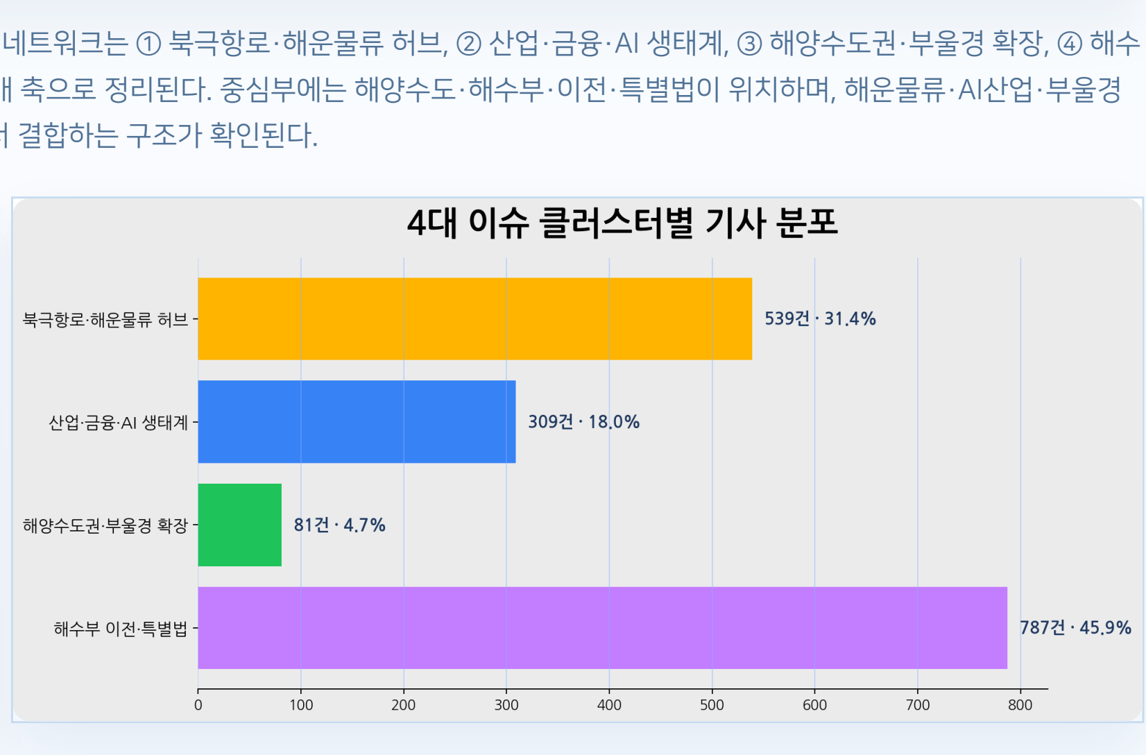
- ● 1. 북극항로·해운물류 허브 539건 · 31.4%
- ● 2. 산업·금융·AI 생태계 309건 · 18.0%
- ● 3. 해양수도권·부울경 확장 81건 · 4.7%
- ● 4. 해수부 이전·특별법 787건 · 45.9%

※ 네트워크 링크 두께는 v7에서 전체적으로 얇게 조정해 군집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도록 수정함.



네트워크 해석: 전체 네트워크는 ① 북극항로·해운물류 허브, ② 산업·금융·AI 생태계, ③ 해양수도권·부울경 확장, ④ 해수부 이전·특별법의 4개 축으로 정리된다. 중심부에는 해양수도·해수부·이전·특별법이 위치하며, 해운물류·AI산업·부울경 확장 군집이 주변에서 결합하는 구조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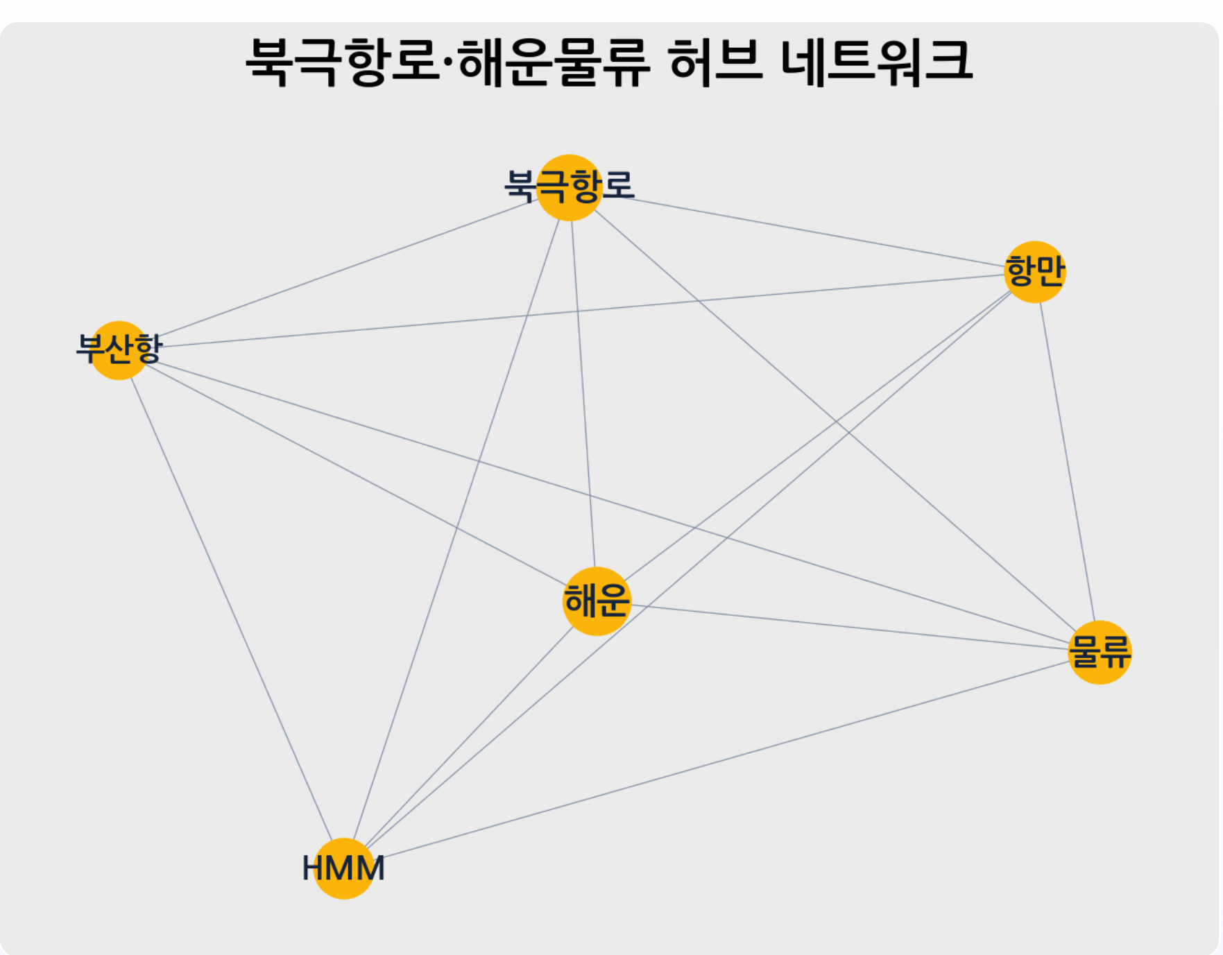


4개 대분류 클러스터

4. 4대 클러스터별 이슈 구조와 관련 기사

Cluster 1 **북극항로·해운물류 허브** 539건 · 31.4%

북극항로 HMM 부산항 BPA 해운기업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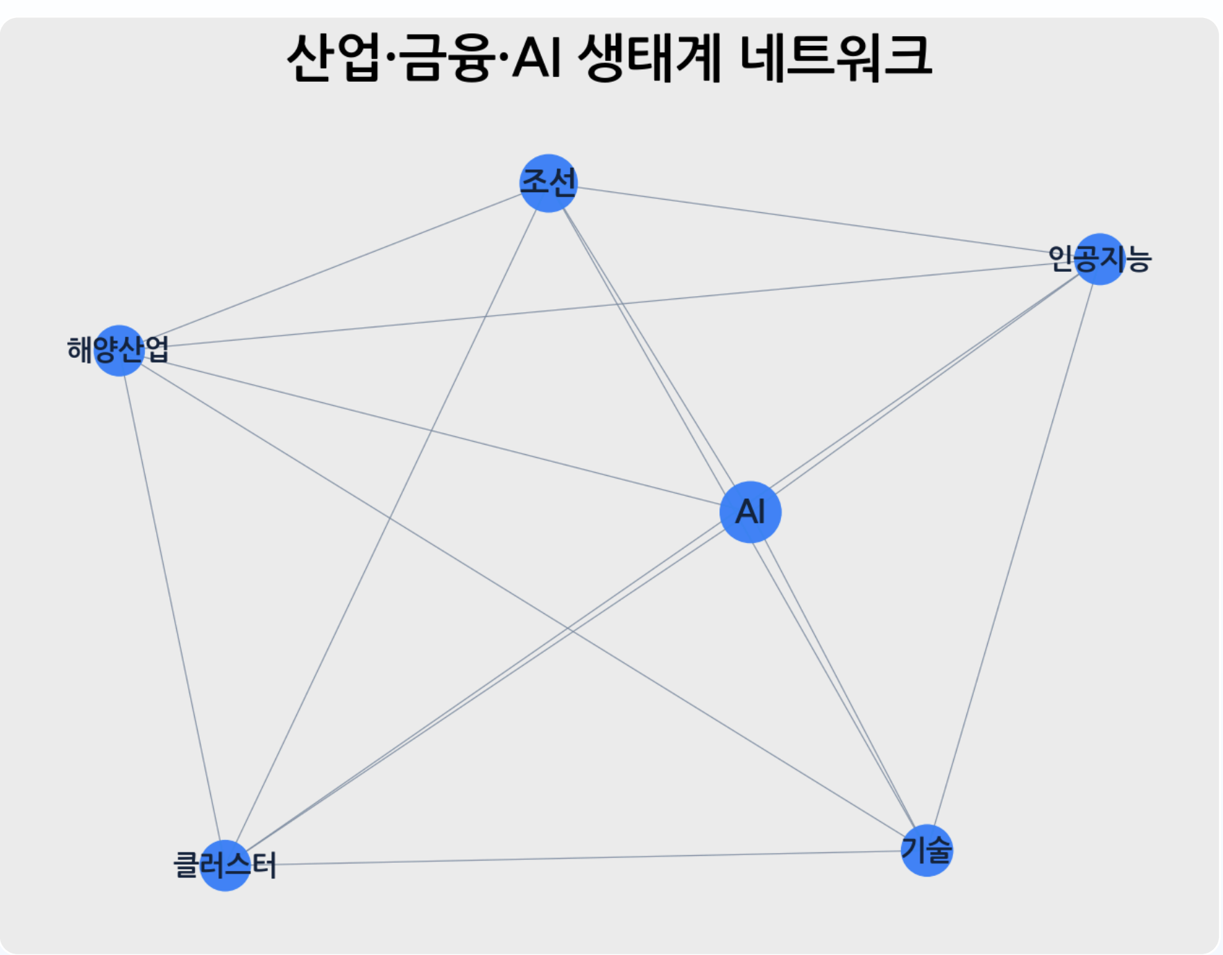
- 북극항로, 해운, HMM, 부산항이 함께 등장하며 해양수도 담론의 실물 산업축을 형성하였음.
- 즉 해양수도 부산은 기관 이전을 넘어 해운기업 집적과 부산항 허브 전략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뚜렷함.

대표 기사 링크

1. [정책탐구생활] 부산항만공사, 정부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 완성 총력 지원
   2026.02.02 · 브릿지경제
2. [인터뷰 | 윤희성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선사가 해양산업 중심역할하는 '해양수도' 그릴 수 있어야"
   2026.02.06 · 내일신문
3. 북극항로 시대 맞아 전문가 한자리에 부산항 미래 경쟁력 모색
   2026.04.24 · 아시아투데이
4. 흥아해운도 부산 이전 동참…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HMM까지
   2026.07.07 · 파이낸셜뉴스

Cluster 2 **산업·금융·AI 생태계** 309건 · 18.0%

AI 조선 해양산업 해양금융 연구센터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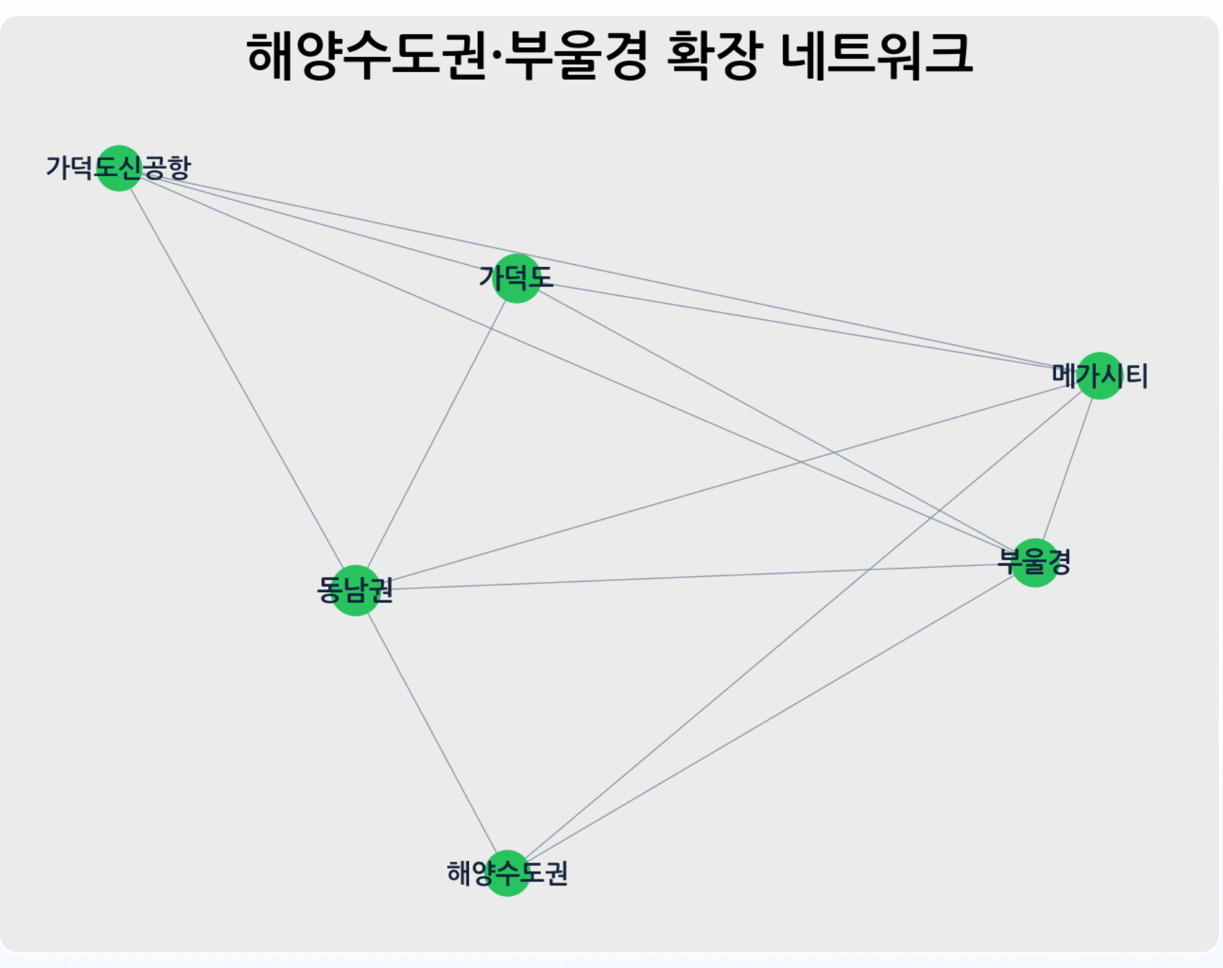
- AI, 조선, 해양산업, 해양금융이 결합하면서 해양수도 논의가 첨단산업 생태계 구상으로 확장되었음.
- 특히 해양AI소재연구센터, 공동연구, 금융조직 개편 등의 보도가 반복되며 부산형 해양산업 전환 담론이 강화됨.

대표 기사 링크

1. 부산 특화 '해양산업 AI' 생태계 조성 박차
   2025.08.13 · 파이낸셜뉴스
2. 부산TP, 부경대 등 4개 기관과 해양수산 AI 연구 '맞손'
   2025.09.17 · 메트로경제
3. [대담한K] CES가 주목한 부산 기업, AI로 북극항로 개척
   2026.01.19 · KBS
4. 부산 '해양AI소재연구센터' 구축 조선 해양산업 대전환 시동
   2026.07.08 · 서울경제

Cluster 3 **해양수도권·부울경 확장** 81건 · 4.7%

해양수도권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가덕도신공항 행정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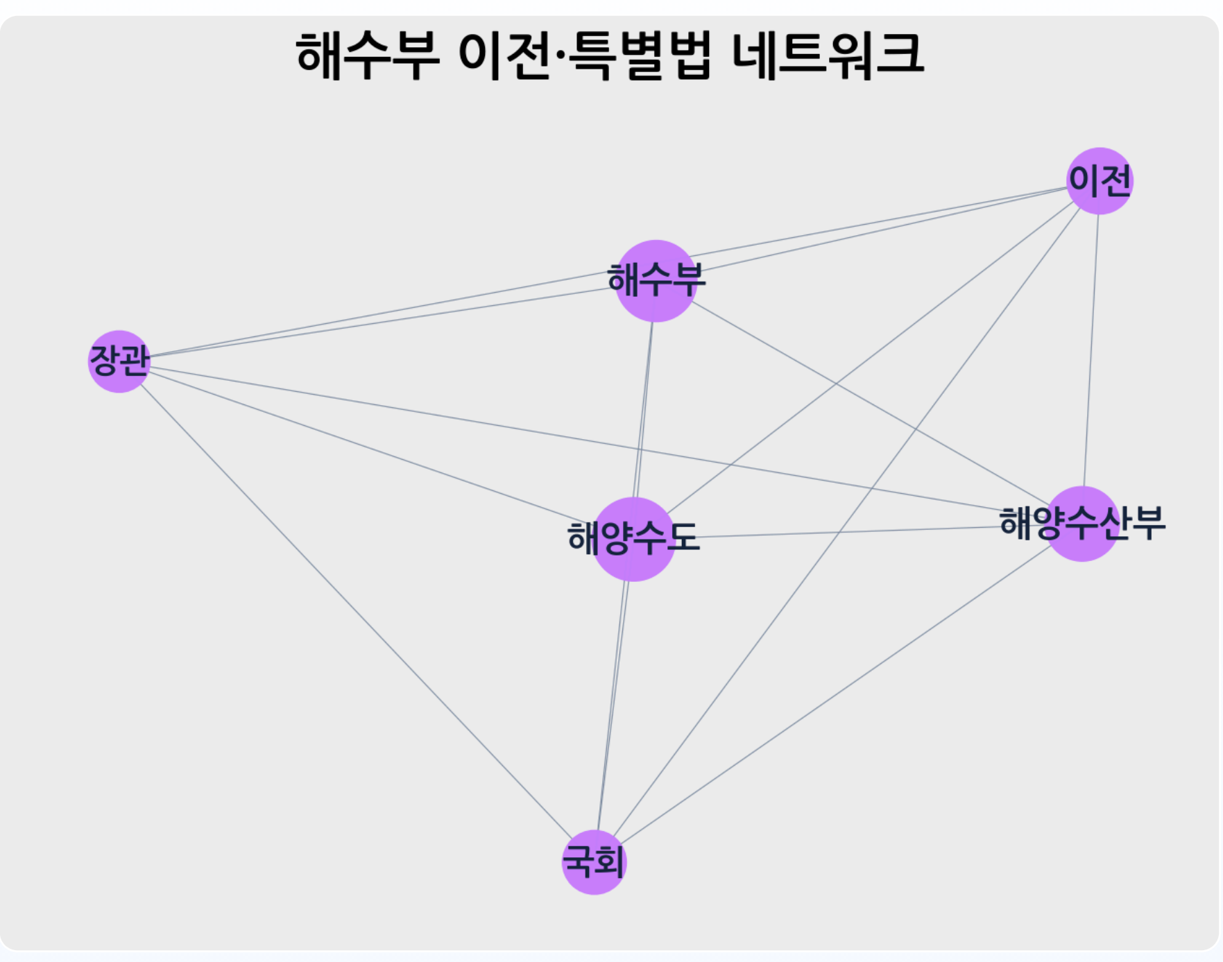
- 해양수도 이슈는 부산 단일 도시를 넘어 부울경·동남권·해양수도권 등 초광역 공간 담론과 결합해 확산되었음.
- 가덕도신공항, 메가시티, 동남투자공사 등이 맞물리며 해양수도 담론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임.

대표 기사 링크

1.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 수도 만들 것"
   2025.04.18 · 한겨레
2. 전재수 "50조 동남투자공사로 동남권 경제구조 바꾸겠다"(종합)
   2026.05.20 · 이데일리
3. '부울경 메가시티'에 올라탄 김상욱 "울산 AX 제조혁신 수도 만들 것"
   2026.04.14 · 파이낸셜뉴스
4. 부울경 '메가시티 vs 행정통합' 충돌 지방선거 핵심 쟁점
   2026.04.14 · 국민일보

Cluster 4 **해수부 이전·특별법** 787건 · 45.9%

해수부 특별법 청사 조직개편 해사법원 국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군집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특별법, 청사, 조직개편이 해양수도 담론의 중심축을 형성하였음.
- 즉 해양수도 이슈는 상징적 구호를 넘어 제도·조직·법률 기반을 실제로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됨.

대표 기사 링크

1. '1% 해양수산부'만 부산으로 옮기나
   2025.07.11 · 내일신문
2.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 낸다 이전지원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2025.10.16 · 매일경제
3. [속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25.11.27 · 서울경제
4.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 부산으로 총집합 '해양수도' 재탄생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
   2026.01.02 · 문화일보

5. 종합 해석 및 해양수산 시사점

핵심 요약

기간을 2025년 4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확장해 보면, 해양수도 이슈는 단순한 지역 브랜드 보도를 넘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북극항로·해운기업·부산항을 통한 해운물류 허브 논의, AI·조선·해양금융을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논의, 그리고 해양수도권·부울경으로의 공간적 확장 논의가 단계적으로 결합해 형성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즉 초기에는 해수부 이전이 중심축이었다면, 2026년에는 해운기업 이전과 해양산업 전환, 부울경 확장 전략까지 후속 실행 보도가 강화되며 의제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기준

- 자료: 빅카인즈 뉴스 검색 결과 파일
- 기간: **2025.04.01–2026.07.30**
- 분석대상: 전체 1,855건 중 중복·예외 표시 139건을 제외한 **1,716건**
- 정치성 기사 필터링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상위 연관어와 네트워크 구성 단계에서 일반 지역명·사건성 노이즈를 일부 제외하였음.

분석 방법

① 보도량 추이 분석
기사 일자를 기준으로 일별 기사 수를 집계하고, 특정 시점의 급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크 일자는 기사 제목과 본문을 함께 검토하여 증가 요인을 해석하였다.

② 핵심 연관어 분석
제목·키워드·특성추출·본문에서 해양수도 관련 핵심어를 선별해 빈도와 동시출현 관계를 계산하였다. 검색어 자체와 일반 지역명은 상위 연관어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③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링
기사 단위 동시출현을 기반으로 노드와 링크를 구성했으며, 4개 주제축(북극항로·해운물류 허브, 산업·금융·AI 생태계, 해양수도권·부울경 확장, 해수부 이전·특별법)으로 분류하였다.